

중 커제, 삼성화재배 바둑대회 우승 결승서 스웨 9단에 2-0 완승...상금 3억원 획득



스무 번째 삼성화재배는 커제 9단의 품에 안겼다. 9일 중국 상하이 그랜드센트럴호텔에서

벌어진 2015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결승 3번기 제2국(사진)에서 커제(중국랭킹 1위)는 스웨 9단(2위)과 발인 대결에서 200수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2-0으로 이겼다. 우승상금 3억원. 8일 1국에서도 커제는 1집반승을 거뒀다.

커제는 비교적 무난한 승리를 올렸던 1국과 달리 2국에서는 중반에 수세에 몰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변 타개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나이(18세)답지 않은 안정적인 반면운영과 날카로운 반격이 돋보인 한판이었다. 이날 우승으로 커제는 중국 1인자다운 면모를 과시하며 세계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한 첫 '90후(1990년 이후 출생자를 뜻하는 중국식 표현)' 기사가 됐다. 백돌을 질 때 적수가 없어 '백번불패'로 불리며 공식대국에서 33연속 백번 연승을 기록해 온 커제는 우승과 함께 백번 34연승을 이어갔다.

상하이(중국) |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리복-우드우드 콜라보 컬렉션 90년대 영국 젊은이 거리 패션 재탄생



리복 클래식 이 덴마크 패션 브랜드 우드우드(Wood Wood)와 공동으로 콜라보레이션 컬렉션(Reebo

k Classic by Wood Wood·사진)을 출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컬렉션은 로고를 중시하고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이 절정을 이뤘던 90년대 영국 젊은이들의 거리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리복 클래식 라인 고유의 스타일과 우드우드의 세련된 스트리트웨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했다. 컬렉션은 블랙 컬러 바탕에 화이트로고 프린트가 눈에 띄는 프린티엄 트랙슈트, 가슴 부분에 큰 로고가 디자인된 스웨트 셔츠, 토널 프린트 패턴이 등과 팔 부분을 감싸는 형태의 패딩 재킷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전체적으로 리복과 우드우드의 브랜드 로고가 심플하고 큼직하게 들어가 눈에 확 띄는 프린트로 디자인됐다. 디자인어들은 브랜드를 잘 표현하는 리복 클래식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우드우드의 그래픽 아가이브 요소와 결합해 두 브랜드를 모두 잘 표현하는 융합된 이미지를 탄생시켰다. 이번 컬렉션은 리복 클래식 스토어(압구정, 부평, 안산 한양대)와 부산 광복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리복 클래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rbk.classic)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지난해 임금근로자 평균연봉 3240만원

국내 임금근로자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3240만원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 100명 중 소득 상위 50번째 근로자의 연봉(중위소득)은 2465만원, 소득 상위 10번째는 6408만원이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년도 소득분위별 근로자 임금'을 분석한 결과, 고용주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봉은 6408만원 이상이었다. 상위 20%는 4586만~6408만원, 상위30%는 3600만~4586만원이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240만원이었다. 소득분위별 평균연봉은 10분위(상위10%이상) 9287만원, 9분위(10~20%) 5390만원, 8분위(20~30%) 4030만원, 7분위(30~40%) 3256만원, 6분위(40~50%) 2708만원, 5분위(50~60%) 2284만원 등이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10분위(상위 10%이상)의 총연봉은 임금근로자 전체 연봉의 28.7%를 차지했다.

오리온, 그린포장 프로젝트 진행

오리온은 지난해 11월 시작한 '착한 포장 프로젝트'의 세 번째 작업으로 인체에 무해한 포장재를 개발하는 '그린포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9일 밝혔다. 오리온은 포장재 인쇄와 접착에 쓰이는 유해화학물질 줄임 친환경·친인체 물질로 대체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008년 포장재 인쇄에 쓰였던 공업용 화학약품인 톨루엔 사용을 중단했다. 또 포장재 접착에 필요한 화학용제인 솔벤트 사용량을 20% 이하로 낮췄으며, 향후 0% 실현을 목표로 기술 개발 중이다. 오리온은 이번 3차 포장재 개선을 통해 과자의 주 소비층인 아이들에게 무해한 포장재를 사용하게 된다. 또 포장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을 최소화해 환경보호는 물론 포장재 생산 직원들의 작업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의 초대형 럭셔리 세단 'EQ900'가 9일 공식 출시됐다. 뛰어난 승차감과 정숙성은 물론 국내 최초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 세계 최초 '착좌자세 추천시스템' 등의 첨단 사양을 갖추고 세계 명차와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베일 벗은 EQ900, 첨단 입고 명품을 말하다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 첫 주자 공개

세계 최초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 장착
고속도로 주행지원 등 최첨단 기술 집합체

현대차가 아심차게 출시한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의 초대형 럭셔리 세단 'EQ900'(이쿠나인헌드레드)'가 9일 공식 출시됐다. 세계 최고 명차들과의 경쟁을 표방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차이자 최상위 세단인 만큼 벤츠 S 클래스나 BMW 7시리즈 부럽지 않은 호화 사양으로 가득하다.

●차원이 다른 스마트 시트와 정숙성

EQ900은 시트부터 특별하다. 독일척추건강협회(AGR)로부터 공인 받은 '모던 에르고 시트'에는 EQ900 개발진과 서울대 의대가

산학합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운전자가 키, 앉은키, 몸무게 등 신체 체형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의 운전자세를 분석해 자동으로 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까지 조절해준다. 또한 어깨부 경사조절, 헤드레스트 전후 조절 등 총 18개 방향(리무진 기준, 세단은 14개 방향)의 시트 전동조절 기능을 통해 신체의 전 부위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가 덜하도록 돕는다. 정숙성도 완벽에 가깝다. 도어 삼중 실링, 국산차 최초 전(全)유리 이중 접합 차음 글래스, 풀 언더커버 적용은 물론 타이어 공명음을 줄인 '중공 공명음 알로이 휠'까지 탑재해 동급 최상의 정숙성을 실현했다.

●자율 주행에 가까운 첨단 주행 기술 갖춰

EQ900은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 '후측방 충돌회피지원시스템' 등 최첨단 주행지원 기술이 대거 포함된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가 도입되어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은 차간거리제어기능과 차선유지기능은 물론 전방 차량 정차시 자동 정지 및 재출발, 제한속도 구간별 속도조절 등의 안전주행을 지원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또 차로 변경 중 후측방 시야 사각지대의 차량으로부터 추돌 위험상황이 감지되면 변경하려는 방향의 반대편 바퀴만 제동시켜 기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해 사고를 방지하는 후측방 충돌회피 지원시스템도 국산차 최초로 적용되어 있다. 아울러 신개념 서스펜션인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도 최초 적용됐다. 고속 주행시의 뛰어난 승차감과 조종 안정성 향상은 물론 충돌 회피를 위해 급격히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에도 거동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최강의 편의사양

편의 사양도 최상위 럭셔리 세단답다. 공조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있을 때에도 실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쾌적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하는 스마트 공조시스템, 앞·뒷좌석 조그 다이얼로 조작 가능한 DIS 내비게이션, 전후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고스트 도어 클로징 등 다양한 첨단 편의사양이 적용되어 있다. EQ900의 판매가격은 3.8 GDi 모델이 7300만~1억7000만원이며, 3.3 터보 GDi 모델은 7700만~1억1100만원, 5.0 GDi 모델은 1억1700만원이다(개소세 5% 적용 기준, 2016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김택진 대표 “리니지 바탕으로 더 큰 여행 떠난다”

엔씨소프트, 모바일게임 신작 2종 공개
영화·애니메이션·완구 등 콘텐츠 확장

“장수게임 리니지의 더 큰 여행이 시작된다.”

엔씨소프트는 9일 서울 청담동 CGV에서 인기 PC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출시 17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게임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 신작 2종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의 키노트를 발표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리니지는 17년을 넘어 더 큰 여행을 준비 중이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즐기는 시대로 진입한 만큼 리니지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조작업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향후 리니지 콘텐츠를 모바일게임은 물론 영화와 애니메이션, 완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한 신작 모바일게임은 그 시작을 알리는 첫 결과물이다.

●리니지 모바일로 재탄생

엔씨소프트가 이날 공개한 리니지 기반 모바일 게임은 '프로젝트E'와 '리니지 레드나이트'다. 프로젝트E는 원작 리니지를 모바일 환경으로 그대로 옮긴 역할수행게임(RPG)이다. 리니지가 가진 감성과 특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 중이다. 이용자는 원작 리니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레드나이트는 리니지의 세계관을 이어받은 지적재산권(IP)활용 모바일게임이다. 다양한 연영층이 즐길 수 있도록 원작 게임 속의 캐릭터들이 귀여운 모습으로 재창조됐다. 이용자는 개인간 대전(PvP)과 개인



엔씨소프트가 17년 장수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 2종을 공개하는 등 콘텐츠 영역과 플랫폼 확장에 나선다. 9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니지'의 새로운 여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사진제공 | 엔씨소프트

과 프로그램 대전(PvE)이 공존하는 사냥과 점령, 헬팩 단위 공성전, 게임 내 거래 시스템, 커뮤니티 등을 즐길 수 있다. 2016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이 밖에도 리니지 IP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준비 중이다. 가장 빨리 공개될 제품은 16일부터 팬의점과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선보일 완구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리니지2'를 기반으로 한 신작을 넷마블게임즈와의 협업을 통해 준비 중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서로 대전하고 관전할 수 있는 '리니지 콜로세움'과 모바일 환경에서 게임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리니지 원작을 즐기는 유저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더 큰 무대로 나아갈 것”

이날 김 대표는 리니지의 확장을 무인탐사선 보이저1호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1977년 목적 및 토성 탐사를 목표로 발사된 보이저1호가 이제는 성간 탐사를 시도하는 것처럼 리니지도 좀 더 큰 무대로 나갈 것이

다”고 말했다. 리니지를 포함한 엔씨소프트의 게임을 영화와 e스포츠, 완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와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는 물론 '아이온' 등 인기 PC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준비 중이다. 또 지난 달 지스타에선 '블레이드&소울'의 스토리와 OST를 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하는 등 게임이 아닌 다른 문화 영역으로의 확장도 시험했다. 김 대표는 “애플TV를 보면 이제 TV는 단순히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것을 넘어 게임까지 하는 디바이스로 발전했고, 반대로 콘솔게임기도 게임만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멀티미디어 센터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제 하나의 기기에서 여러 콘텐츠를 동시에 누리는 시대로 진입했고, 우리는 이처럼 바뀐 환경에서의 창조작업을 꿈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품이나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되는 미디어믹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게임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얘기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모바일게임 기대작 담금질 '소울 앤 스톤'·'크리스탈 하츠' 등 테스트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모바일게임 기대작들이 줄줄이 담금질에 돌입하면서 유저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션형 수집 역할수행게임(RPG) '소울 앤 스톤'의 비공개 테스트를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이 게임은 전사, 암살자, 마법사, 마검사 4종의 영웅이 펼치는 생동감 넘치는 액션을 앞세운 방대한 콘텐츠와 실시간 전투, 영웅 태깅 시스템과 소환수 시스템이 특징인 대작 모바일 게임이다. 테스트 참가자들에게는 다크인선전 특권과 개인간대전(PvP) 랭킹 이벤트, 루비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넥스트플로어는 DMK팩토리가 개발한 신작 모바일 RPG '크리스탈 하츠'의 비공개 테스트를 14일까지 진행한다. 이 게임은 400여종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동과 타격 설정은 물론 최대 4종의 캐릭터로 구성된 파티 플레이 역시 자유롭게 컨트롤 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테스트 기간 중 레벨달성 및 아레나 랭킹에 따라 정식 서비스 시 사용 가능한 영웅 소환권과 수정 아이템을 지급한다.

한빛소프트는 모바일게임 신작 '세계정복'의 파이널 테스트를 1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테스트다. 대륙을 호령하는 전 세계 실존 영웅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방식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세계정복'의 차기작이다.

김병근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